

경제학

해설위원 : 장 선 구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 난이도 증가 추세

이번 시험은 4문제(2책형으로 7,8,9,10번)가 변별력을 위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예전의 기출 경향과 유사하거나 일부 신선한 지문도 나왔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난이도 상의 문제가 20%(4문제)정도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중하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추세를 보건데, 내년에는 제대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시험이 공인시험으로 대체되고 있고, 증가하는 실력자 수험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올해의 수준보다는 약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확하게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암기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합격권은 80점 정도는 획득해야

난이도 상의 문제가 4문제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실수하고 이들 문제 중에서 한 두개를 맞추었다면 대략 85점에서 80점 정도 획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강의 경험상에 비추어 볼 때 느낀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계산문제 강조

이번 시험은 최근 변화해가는 경제학의 추세를 분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산문제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산문제만 모아서 연습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제약에 걸려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미시경제학은 전부 계산문제를 출제합니다.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계산문제를 풀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거시의 경우도 계산문제를 좀 정리하셔야 하는데, 거시는 나오는 부분이 승수, 실효승수, 실업률 계산, 경제성장회계, 솔로우 모형, IS-LM(최근에는 IS-LM을 싫어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서인지, 강의 비중만큼 출제되지 않습니다.), 비교우위 판단, 관세의 후생변화 등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시에서 압도적으로 계산문제가 많이 출제되다보니 거시의 경우에는 서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으로 나뉘게 되는데, 국제무역은 미시경제학이고 국제금융은 거시경제학에 가깝습니다. 서울대 조순, 정운찬, 전성인, 김영식 교수님의 교재나 폴 크루그먼의 교재를 보면 국제무역은 아예 미시경제학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의 부과로 인한 후생변화는 소비자, 생산자 잉여와 자중손실을 구하는 미시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여야 합니다. 또한 비교우위의 판단문제도 미시경제의 교환의 이득에서 다루게 됩니다. 결국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비중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경제학을 따로 분류하게 되면 산업조직론, 후생경제학, 재정학,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 모두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 원칙과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추세

미시경제학은 역시 정형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거시경제학은 직관적인 핵심 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응용하는 것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미시는 목적식과 제약식에 기반을 둔 형태의 접근법이 중요하고, 거시는 최신 내용을 반영하려는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 수험생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출제위원들 ^^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은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제학의 전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를 해야 하는데, 소비자선택이론의 핵심인 무차별곡선이나 독점과 같은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별로 출제되지 않았고, 여가와 노동의 선택문제,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시에서도 그토록 공부하는 다양한 GDP와 고전학과와 케인즈 학파의 이론 비교, 학파 정리 등은 언급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학파별 분류는 교수님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학 전체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고전학과와 케인즈 통화주의를 따지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 또한 경제성장 솔로우 모형과 내생적 성장이론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성장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중요한 부분을 골고루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잘 가려서 보셔야 합니다. 그 일을 담당하는 게 강사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만..

[공부방법(고득점의 길에 이르는 비법누설)]

경제학 시험의 최근 추세를 반영해서 고득점을 하는 비법이 아닌 비법같은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교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수험생이지만 어디까지나 경제학 시험의 출제위원들은 교수님들입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이 직접 쓰신 교재를 기본서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 강의시에 활용하는 『정식 미시경제학』, 『정식 거시경제학』 (비엔앰박스 출간, 홍승기(동국대), 박환재(대구 카톨릭대), 이진형(성균관대), 장선구 공저)을 추천합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다른 교수님들께서 좋은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경제학과 교수님들의 연구실에는 한권씩 서재에 꽂혀 있는 책입니다.

둘째, 계산문제를 모아서 반복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샷 123 계산문제 특강(미시 142문제, 거시 73문제)를 수록한 책이 있습니다. 객관식 경제학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반복해서 풀면 계산문제.....'그거 그거 그거입니다. ^^'

셋째, 계산문제는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힘들어 하면 경제학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프는 경제학적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간략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면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두 축인 xy축에 어떤 변수가 있는가를 유심히 보시고 이 두 주인공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드라마는 아무리 봐도 스토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앵무새에게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면 어떤 것을 가르치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합니다. 경제학 그래프는 쉽습니다. 탕고를 혼자서 출수 없듯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그래프가 어떤 축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지만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수리형 계산문제와 더불어 그래프형 문제를 따로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9월 출간예정). 이를 위한 특강도 객관식 문제 풀이 시간에 따로 강의할 생각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넷째, 기초 수학을 정복해야 합니다. 경제학은 수리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간단한 미분을 최종 목표로 하고, 간단한 연립방정식, 분수의 계산, 삼각형 면적, 1차 방정식과 그래프, 2차 방정식과 그래프, 등비급수 수열(이해만 하고 계산결과만 알면 충분) 등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문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막연한 경제학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초경제수학특강』 (형설 출판사, 2016년, 3판, 이재민(웅지세무대학), 정영숙(웅지세무대학), 장선구 공저)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혼자서도 볼 수 있고 필요하면 간단하게 강의를 수강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객관식 시험은 객관식처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을 눈으로만 기본서를 본다거나 계속해서 요약정리 된 것을 풀면 실력이 전혀 늘지 않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도서관에 앉아서 이론만 배우는 셈입니다. 기본 이론을 습득했다면 수많은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풀면서 자신이 어느 부분에 약한지를 체크하고, 문제 푸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식 수업을 위해서 객관식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되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전연습을 해야 합니다. 객관식 교재는 제가 다른 교수님들과 집필한 『객관식 경제학』 (비엔앰박스 출간, 정영숙(웅지세무대), 이재민(웅지세무대), 장선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경제학 I』 (비엔앰박스 출간, 홍승기, 박환재, 장선구)가 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경제학은 20문제로 미시경제학 10문제와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 10문제를 각 챕터마다 골고루 일관성있게 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풀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믿고 따라 오십시오. 다년간의 대학 강의 경험과 더불어 경제학의 변화와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기회비용 매우 중요하다는 계속 기회비용 문제만 따지는 분들을 보면 방향을 잘못 잡고 공부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회비용 문제는 고등학교 수능에서도 내려가서 초등학교 경제 감각 키우는 읽을거리에 기회비용과 거래가 나옵니다. 먼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흐름을 보고 공부를 해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 1. 케인즈의 화폐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은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기도 한다.
- ②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 되는 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 ③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 ④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②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화폐수요이론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81, p.95

[간단 해설]

- ① 화폐와 수익성 자산인 채권 중에서 어느 것을 보유할 것인가의 문제를 케인즈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라고 했다. 유동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없는 화폐보다는 유동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수익성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총알이 바로 화폐가 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을 구입하게 된다.
- ②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를 유동성함정이라고 한다. 유동성함정에서는 이자율에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가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화폐수요 곡선은 수평이 되고, LM곡선도 수평이 된다.
- ③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상금에 해당하는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증가한다.
- ④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에 입각하면 화폐수요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와 투기적 동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소득과 관련이 있고,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관련이 있다.

문 3. 명목이자율이 15 %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5 %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20 %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세후 실질이자율은?

- ① 3 %
- ② 5 %
- ③ 7 %
- ④ 9 %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피셔가설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92, p.106

[간단 해설]

피셔가설은 '명목이자율(R) = 실질 이자율(r) + 인플레이션율'이므로 주어진 식을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 현재 이자소득세가 20%를 명목이자율에 과세하게 되므로 명목이자율은 12%(=(1-0.2)×15%)이므로 12%=r+5%가 되어 실질이자율은 7%가 된다.

문 4.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국 개방경제를 가정하자. 먼델-플레밍의 IS-LM-BP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BP곡선은 (산출, 이자율) 평면에서 수평선으로 나타난다.
- ② 고정환율제하에서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③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 ④ 재정정책의 국민소득에 대한 효과는 고정환율제보다 변동환율제하에서 더 커진다.

[정답] ④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먼델-플레밍 모델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123, p.140

[간단 해설]

- ① BP곡선은 자본이동이 완전한 세상에서는 수평이 되고, 자본이 완전히 통제된 경우에는 수직이 된다.
- ② "고재변금"의 공식에 입각해보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금융정책(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 ③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외환의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할 압력이 생기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방어하는데 통화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독자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 ④ "고재변금"에 입각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변동환율제도인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다.

문 5. 총수요(AD)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②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실질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③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실질환율 상승, 즉 질하가 생겨나 순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④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가계의 실질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답] ①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총수요곡선의 도출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87, p.101

[간단 해설]

- ①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노동수요는 감소하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초과 공급(실업)이 발생한다. 노동시장과 생산함수를 활용한 접근방식은 총공급곡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다.
- ② 물가하락으로 인한 이자율변화 효과로 총수요곡선을 도출하는 설명이다.
- ③ 물가하락으로 인한 환율변화 효과로 총수요곡선을 도출하는 설명이다.
- ④ 물가하락으로 인한 실질자산(피구)효과를 통해 총수요곡선을 도출하는 설명이다.

문 2. 재화 A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Q_d = 12 - P$ 및 $Q_s = 2P$ 로 표현된다. 이 재화에 개당 3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단,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 P 는 가격이다)

- ① 1원
- ② 3원
- ③ 5원
- ④ 7원

[정답] ②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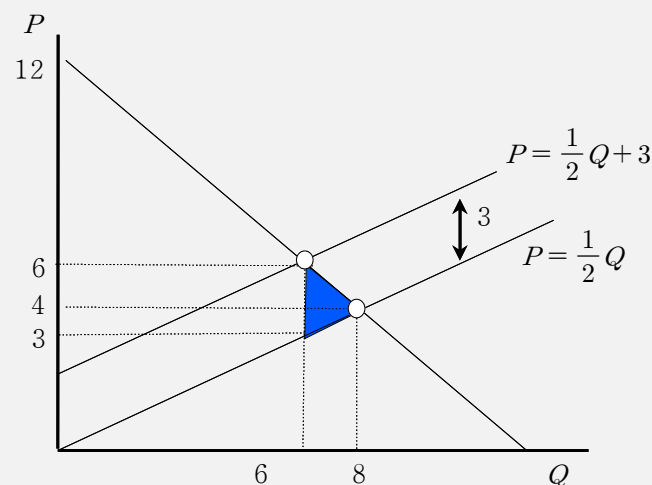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11, p.12

[간단 해설]

조세부과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동등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모두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보고 풀면 된다. (만일 주관식의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 있으나 객관식의 경우에는 답만 구하면 된다.) 개당 3원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다면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3만큼 올라가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직축이 P로 되어 있는 변수이므로 P로 정리해서 식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곡선은 $P = \frac{1}{2} Q_s$ 이고, 수요곡선은 $P = 12 - Q_d$ 이다. 공급자에게 조세 3원을 부과하면 조세 부과 후의 공급곡선은 $P = \frac{1}{2} Q_s + 3$ 가 된다. 조세부과 후의 경제적 순손실은 자중손실(DWL, EB)인 삼각형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쉽게 자중손실은 3원($= \frac{1}{2} \times 3 \times 2$)가 된다.



문 6.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0년대 말 필립스(A. W. Phillips)는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찾아냈다.
- ② 총공급곡선은 물가와 산출 분석에,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분석에 적절하다.
- ③ 이력현상(hysteresis)이 존재할 경우 거시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도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른 희생물은 적응적 기대보다 합리적 기대에서 작게 나타난다.

[정답] ①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필립스 곡선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97, p.111

[간단 해설]

- ① 필립스 곡선은 영국의 실제 자료를 통해서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 ② 필립스 곡선과 총공급곡선(AS)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심대상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인지, 물가상승률과 국민소득수준인지의 차이만 있는데, 실업률이란 국민소득 수준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③ 이력현상은 장기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장기에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 ④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감소(실업률 증가)라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고, 정부의 정책이 사전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대인 경우가 희생비용이 더 작아진다. 문제의 출처자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된 경우라고 가정한 것이다.

문 7. 숙련노동자가 비숙련노동자에 비해 풍부한 A국과 비숙련노동자가 숙련노동자에 비해 풍부한 B국이 있다. 폐쇄경제를 유지하던 두 나라가 무역을 개시하여 A국은 B국에 숙련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B국으로부터 비숙련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입한다고 가정하자. 헤셔-올린 모형의 예측에 따라 이러한 무역 형태가 A국과 B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두 나라 모두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높다)

- ① A국의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 ② B국의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 ③ A국 비숙련노동자의 교육 투자를 통한 숙련노동자로의 전환 인센티브가 감소한다.
- ④ B국 비숙련노동자의 교육 투자를 통한 숙련노동자로의 전환 인센티브가 증가한다.

[정답] ①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헤셔 올린 정리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113, p.129

[간단 해설]

- ① A국은 숙련노동자의 수가 많은 숙련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따른다. B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자가 많아서 A국의 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B국보다는 낮은 상태이다. 그런데 A국이 숙련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게 되면 B국보다 낮았던 A국의 숙련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두 국가의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은 동일해진다. 문제에서는 A국에서 원래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보다 높은 상태였는데, A국에서 숙련노동자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게 되면 A국의 숙련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과의 격차는 벌어지게 된다.
- ② B국은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원래 높았는데, 국가간 교역을 통해서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게 되므로 비숙련 노동자와 임금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 ③ A국에서는 개방을 통해서 숙련노동자의 활약이 커지므로 숙련노동자로 변신해야 임금도 높게 받고 더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숙련 노동자로 변신하기 위해서 비숙련노동자의 교육투자의 유인이 커지게 된다.
- ④ B국은 숙련 노동자가 받는 높은 상대적 임금의 매력이 감소하게 되어, 비숙련노동자들이 숙련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유인은 작아지게 된다.

문 8. 100개의 기업들이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개별기업의 총비용함수와 외부비용은 각각 $C = Q^2 + 4Q$ 와 $EC = Q^2 + Q$ 로 동일하다. 이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이 $Q_d = 1,000 - 100P$ 로 표현될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과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균형생산량 간의 차이는? (단, C 는 각 기업의 총비용, Q 는 각 기업의 생산량, EC 는 각 기업의 생산에 따른 외부비용, Q_d 는 시장수요량, P 는 가격이다)

- ① 50
- ② 100
- ③ 150
- ④ 200

[정답] ②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외부성 계산문제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63, p.74

[간단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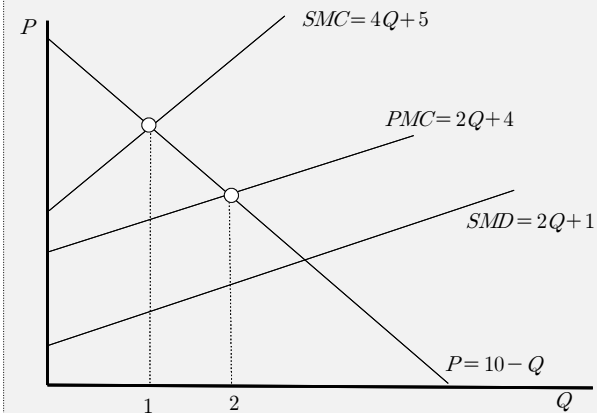
문제는 100개의 기업들로 구성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기업의 총비용함수와 외부비용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를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전체의 공급곡선으로 바꾸어서 시장수요곡선과 같아지는 점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약간 좀더 쉽게 머리를 써서, 시장수요곡선을 아예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으로 바꾸어서 개별기업의 최적생산량을 구하고 이를 시장전체의 기업 수인 100을 곱하는 방법을 써 본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계산식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별기업의 시장수요곡선은 시장에 100개의 소비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비자 한명의 수요곡선은 $Q = 10 - P$ 라고 할 수 있다. $P = 10 - Q$ 가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개별기업의 사적 한계비용은 $PMC = 2Q + 4$ 이고, 외부비용인 $SMD (= MEC) = 2Q + 1$ 이 된다.

따라서 $SMC = PMC + SMD = 4Q + 5$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SMC = P$ 에서 결정되므로, $4Q + 5 = 10 - Q$ 가 되어 $Q = 1$ 이 된다. 한편 사적인 최적 생산량은 $PMC = P$ 에서 결정되므로, $2Q + 4 = 10 - Q$ 에서 $Q = 2$ 가 된다.



이를 사회적으로 바꾼다면 100개의 기업이 있으므로 100을 곱해주면 된다. 결국 사회적인 최적생산량은 100이고, 사적인 최적생산량은 200이 된다.

문제에서는 사회적 최적생산량과 사적인 최적생산량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쉽게 $100 (= 200 - 100)$ 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9. 다음은 A국의 소비함수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C_t 와 Y_t 는 각각 t 기의 소비(조원)과 소득(조원)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시계열이다. 괄호 안의 t 통계량에 따르면 절편과 계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형은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모두 만족하며, ϵ_t 는 잔차이다)

$$C_t = 2.48 + 0.56 Y_t + \epsilon_t$$

(3.51) (4.04)

$$R^2 = 0.85$$

ㄱ. R^2 에 따르면 소비의 총변동 중 85%가 소득 변수를 사용한 회귀모형으로 설명된다.

ㄴ. 소득의 계수 0.56은 한계소비성향이 0.56임을 의미한다.

ㄷ. 소득의 계수 0.56은 소득이 1% 상승할 때 소비가 0.56% 상승함을 의미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소비함수 형태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70, p.84

[간단 해설]

(ㄱ) R^2 의 값이 의미하는 것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 소득의 계수인 0.56은 한계소비성향으로 소비함수의 기울기이며,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경우에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낸다.

(ㄷ) 소비와 소득의 변수가 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 나타낸 것이 아니다. 소득이 1원 상승한 경우에 소비는 0.56조원 상승함을 의미한다.

문 10. 어느 마을의 어부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호수가 있다.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Q)와 어부의 수(M) 사이에는

$Q=70N-\frac{1}{2}N^2$ 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 어부가 일정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 데는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물고기의 가격은 마리당 100원이라고 가정한다. 어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경쟁하면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경우 어부의 수 (N_0)와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 (Q_0)는? 그리고 마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의 어부의 수 (N_1)와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 (Q_1)는?

- $$\begin{aligned} \textcircled{1} \quad (N_0, Q_0, N_1, Q_1) &= (100, 2,000, 50, 2,250) \\ \textcircled{2} \quad (N_0, Q_0, N_1, Q_1) &= (100, 2,000, 70, 2,450) \\ \textcircled{3} \quad (N_0, Q_0, N_1, Q_1) &= (120, 1,200, 50, 2,250) \\ \textcircled{4} \quad (N_0, Q_0, N_1, Q_1) &= (120, 1,200, 70, 2,450) \end{aligned}$$

[정답] ①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공유지의 비극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63, p.74

[간단 해설]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을 먼저 구하면 다음과 같다.

물고기의 시장가격(P)은 100원이고, $Q = 70N - \frac{1}{2}N^2$ 을 고려하면 총수입(TR)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부 한명이 물고기를 잡는데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총비용(TC)은 $2,000N$ 이 된다. 이를 이용해서 이윤함수를 쓰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text{이윤함수는 } \pi &= TR - TC = PQ - 2,000N \\ &= 100(700N - 50N^2) - 2,000N \\ &= -50N^2 + 5,000N\end{aligned}$$

주어진 이윤함수를 어부의 수인 N 으로 미분해서 0로 두면 사회적 최적 어부의 수를 구할 수 있다. $\frac{\Delta\pi}{\Delta N} = -100N + 5,000 = 0$ 따라서 $N = 50$ 이고,

이를 $Q = 70N - \frac{1}{2}N^2$ 에 대입하면 $Q = 2,250$ 이 된다.

그런데 어부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서로 잡으려고 하는 공유지의 비극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윤극대화 수준이 아닌 이윤이 0가 되는 수준까지 어부들이 달려들 것이다. 따라서 이윤함수값이 0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다.

$\pi = -50N^2 + 5,000N = (-50N + 5,000)N = 0$ 에서 $N = 100$ ($N > 0$)
이 된다. 이때 생산량은 $Q = 70N - \frac{1}{2}N^2$ 에 대입하면 $Q = 2,000$ 이 된다.

문 11. 다음의 교환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MV=PY$$

(단, M 은 통화량, V 는 화폐의 유통속도, P 는 물가, Y 는 실질 GDP이다)

- ①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나 실질 GDP가 증가하거나 화폐유통속도가 하락해야 한다.
- ② V 와 Y 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추가하면 화폐수량설이 도출된다.
- ③ V 와 M 이 일정할 때, 실질 GDP가 커지면 물가가 상승해야 한다.
- ④ V 와 Y 가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율과 통화증가율은 비례 관계에 있다.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교환방정식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80, p.94

[간단 해설]

- ① M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균형식이 성립해야 하므로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P 증가, Y증가, V감소이다.
- ② 화폐수량설은 고전학파의 화폐수요이론으로 거시적으로 크게 화폐수요를 해석한 것이다.
- ③ V와 M이 일정한 경우에는 Y가 커지면 P는 감소해야 된다.
- ④ V와 M이 일정한 경우에는 P와 M는 비례관계에 있게 된다.

문 12. 어느 물고기 양식장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양식장이 연간 x 톤의 물고기를 양식할 때,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00x + 7,000)$ 원이다. 동시에 1톤을 더 양식하는 데 따른 수질오염의 피해액, 즉 한계피해액은 $500x$ 원이다. 양식장의 물고기는 톤당 10,000원이라는 고정된 가격에 팔린다. 정부가 과도한 양식을 제한하기 위하여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톤당 세액은?

- ① 500원 ② 1,000원
③ 1,500원 ④ 2,000원

[정답] ②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피구세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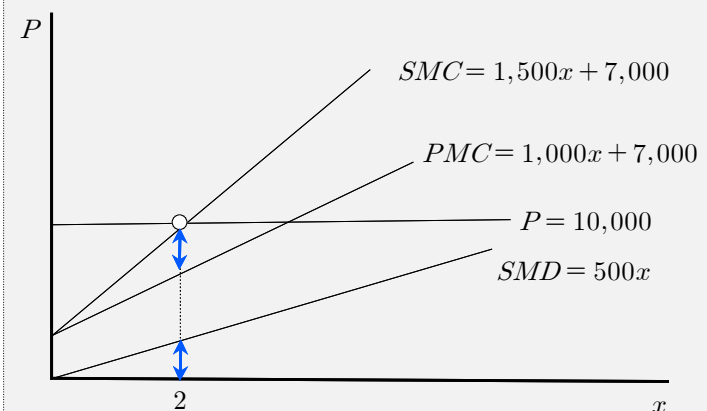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63, p.74

[간단 해설]

피구세를 구하는 문제이다.

그림으로 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사회적인 최적수준은 $SMC=P$ 에서 결정되므로 $x=2$ 가 된다. 이때 최적수준인 $x=2$ 에서 피구세는 $x=2$ 를 한계피해액인 $SMD=500x$ 에 대입하면 1,000원이 된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이 아닌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점만 유의하면 된다. (고정된 가격인 1,000원에 팔리므로 수평의 수요곡선으로 주어지고, 오히려 더 쉽게 문제 출제를 낫춘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하향하는 형태가 아니라 더욱 당황하는 수험생도 있었을 것이다. 가끔은 착한 교수님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 13. 소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레입슨(D. Laibson)에 따르면 소비자는 시간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을 보인다.
- ② 항상소득 가설에 의하면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 대비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 ③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전 생애에 걸쳐 소비흐름은 평탄하지만, 소득흐름은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 ④ 가계에 유동성제약이 존재하면 현재소득에 대한 현재소비의 의존도는 약화된다.

[정답] ④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소비이론과 유동성 제약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72, p.86

[간단 해설]

- ① 하버드 대학의 레입슨의 주장은 통상적인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많이 소개되지 않는 최신의 이론이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거시경제학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냥 무시하면 된다. 답안과 관련이 있는 지문이 있고, 수험생을 혼란시키고 겁을 주기 위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지문이 있다. 이 지문이 가장 대표적인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지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교수님들이 주축이 된 책이 번역되어 올해 나왔는데, 레입슨은 그 저자들 중의 한명이다. 그들은 MIT의 에이스모글루(Acemoglu), 하버드의 레입슨(Laibson), 시카고의 리스트(List)이다.)
- ②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은 소비함수는 $C = kY_P$ 의 형태로 소비는 항상소득의 일정부분만큼 이루어진다. 이때 평균소비성향은 k 가 된다.
- ③ 생애주기 가설은 소득은 젊은 시기에 높으나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득수준이 낮다. 그런데 소비 흐름은 평탄하게 된다.
- ④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그 결과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의 설명력이 높아진다.

문 15. 환율결정이론 중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에서 비교역재의 비중이 큰 나라 간의 환율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 ② 두 나라 화폐 간의 명목환율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 ③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잘 예측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④ 동질적인 물건의 가격은 어디에서나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제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구매력평가설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120, p.137

[간단 해설]

- ① 국가 간의 교역이 되지 않는 비교역재 비중이 큰 경우에는 구매력 평가설의 설명역이 떨어진다.
- ② 구매력평가설의 간단한 기본식은 $P = eP_f$ 로 쓸 수 있다. 명목환율(e)은 두 나라의 물가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 ③ 구매력평가설은 장기 환율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고, 이자율평가설은 단기 환율의 움직임을 잘 설명한다.
- ④ 동일한 상품인 맥도널드의 햄버거 빅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에 대응된다는 완전경쟁적 시장을 의미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문 16. A국의 1인당 GDP(Y), 1인당 물적자본스톡(k), 그리고 1인당 인적자본스톡(h)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54%, 0.84%, 0.63%이며, 총생산함수는 $y = zk^{\alpha}h^{1-\alpha}$ 이다. 이 경우 A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단, z 는 총요소생산성이며, $\alpha = \frac{1}{3}$ 이다)

- ① 0.07%
- ② 0.70%
- ③ 0.84%
- ④ 1.09%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성장회계 방정식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108, p.122

[간단 해설]

생산함수를 증가률의 형태로 쓰면 다음과 같게 된다.

$$\frac{\Delta y}{y} = \frac{\Delta z}{z} + \alpha \frac{\Delta k}{k} + (1 - \alpha) \frac{\Delta h}{h}$$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frac{\Delta y}{y} = 1.54$, $\frac{\Delta k}{k} = 0.28$, $\frac{\Delta h}{h} = 0.63$, $\alpha = \frac{1}{3}$ 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1.54 = \frac{\Delta z}{z} + \left(\frac{1}{3} \times 0.84\right) + \left(\frac{2}{3} \times 0.63\right) \text{이 되어 } \frac{\Delta z}{z} = 0.84 \text{가 된다.}$$

문 17.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가 이진지출 규모를 축소하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② 기대물가의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 ③ 팽창적 통화정책의 시행은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다.
- ④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작다면 인플레이션압력이 발생하여 물가상승압력이 커진다.

[정답] ②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AD-AS 모형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90, p.104

[간단 해설]

- ① 정부가 이진지출규모를 축소하면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 ② 기대물가의 상승은 AS곡선을 상방이동시킨다. 루카스 공급곡선으로 표현한 AS곡선은 $Y = Y_N + \alpha(P - P^e)$ 므로 Y, P 가 아닌 Y_N, P^e 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 ③ 팽창적 통화정책은 총수요(AD)곡선을 우측이동시킨다.
- ④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작은 경우에는 경제침체 상황이므로 디플레이

문 14. U자 형태의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을 때에는 평균비용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 ②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에서 평균비용은 최소가 된다.
- ③ 한계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평균비용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며 지나간다.
- ④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보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높다.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33, p.42

[간단 해설]

-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성직 혹은 야구의 타율, 목욕탕의 물의 온도에서 현재의 평균온도보다 추가적으로 한바가지 붓는 물의 온도가 더 낮아서 물의 평균온도는 하락하게 되어 평균을 나타내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
- ②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서로 교차하는 점에서 평균비용은 최소가 된다. 이는 간략한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 ③ 평균과 한계가 반대로 들어가 있다.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면서 지나가게 된다.
- ④ 평균비용의 최소점의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평균비용은 상승하는 형태가 되고 이때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평균을 끌어 올리게 된다. 역시 그림과 같이 병행해서 보면 쉽게 이해된다.

선 갭이 발생하게 되고, 물가는 하락하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문 18.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2LK$ 이다. 단위당 임금과 단위당 자본비용이 각각 2원 및 3원으로 주어졌다. 이 기업의 총 사업자금이 60원으로 주어졌을 때, 노동의 최적 투입량은? (단, Q 는 생산량, L 은 노동투입량, K 는 자본투입량이며, 두 투입요소 모두 가변투입요소이다)

- ① $L = 10$ ② $L = 15$
③ $L = 20$ ④ $L = 25$

[정답] ②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비용극소화 모형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29, p.38

[간단 해설]

생산자의 비용극소화 문제이다. 미시경제학은 언제나 목적식과 제약식을 이용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이다. 소비자이론이나 생산자 이론 모두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으로 조금만 연습하면 굉장히 쉽다.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목적식과 제약식으로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목적식) $Min TC = wL + rK$

(제약식) $Q = 2LK$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비용하에서 생산극대화(소비자 이론과 동일한 형태)로 주어졌다. 따라서 목적식과 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이 둘은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된다).

(목적식) $Max Q = 2LK$

(제약식) $TC = wL + rK \rightarrow 60 = 2L + 3K$

비용극소화의 생산자 조건은 $MRTS_{LK} = \frac{MP_L}{MP_K} = \frac{w}{r}$ 에서 결정된다.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은 점이다(생산함수가 완전대체제인 우하향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구석해가 발생할 수 있어 좀 고민해야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와 같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로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다.)

$MRTS_{LK} = \frac{MP_L}{MP_K} = \frac{2K}{2L} = \frac{K}{L}$ 이고, $\frac{w}{r} = \frac{2}{3}$ 가 되므로, 두 식이 같아지는

것을 이용하면 $K = \frac{2}{3}L$ 이 된다. 이를 제약식인 비용식($60 = 2L + 3K$)에 대입하면 $L = 15$, $K = 10$ 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 19. 다음은 사과와 배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과의 수요함수 :
 $Q_A = 0.8 - 0.8P_A - 0.2P_B + 0.6I$
○ 배의 수요함수 : $Q_B = 1.1 - 1.3P_B - 0.25P_A + 0.7I$
(단, Q_A 는 사과수요량, Q_B 는 배수요량, P_A 는 사과가격, P_B 는 배가격, I 는 소득을 나타낸다)

- ① 사과와 배는 보완재이다.
② 사과와 배는 모두 정상재이다.
③ 사과와 배 모두 수요법칙이 성립한다.
④ 사과와 배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

[정답] ④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수요함수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3, p.4

[간단 해설]

① 사과와 배는 대체탄력성을 보면 음(-)의 값을 보이므로 서로 보완재 관계이다. 예를들어 $Q_A = 0.8 - 0.8P_A - 0.2P_B + 0.6I$ 에서 P_B 가 상승하면 Q_A 는 하락한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② 사과와 배 모두 수요함수를 보면 소득(I)의 부호가 양(+)이므로 정상재라고 할 수 있다.

③ 두 식 모두 사과의 수요(Q_A)는 사과의 가격(P_A)와 음(-) 관계이고, 마찬가지로 배의 수요(Q_B)는 배의 가격(P_B)와 음(-)의 관계에 있으므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④ 사과와 배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 혹은 소득의 앞에 붙은 계수가 0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에서는 가격과 소득의 변수 앞에 0이 아닌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과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문 20. 어느 나라가 kg당 10달러에 땅콩을 수입하며, 세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 나라의 땅콩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Q_d = 4,000 - 100P$ 및 $Q_s = 500 + 50P$ 로 표현된다. 수입을 500 kg으로 제한하는 수입할당제를 시행할 때, 새로운 시장가격과 이때 발생하는 할당지대는? (단,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 P 는 가격이다)

- ① 20달러, 4,000달러
② 15달러, 4,000달러
③ 20달러, 5,000달러
④ 15달러, 5,000달러

[정답] ③ [난이도] ★★ [중요도] ★★

[출제 포인트] 수량할당

[참고문헌] 『원샷 123 핵심이론 정리』 Point 116, p.132

[간단 해설]

수량할당의 문제는 관세의 부과 효과와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은 관세의 경우는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수입만큼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수량할당인 경우에는 이 관세 수입을 수입업자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를 할당지대라고 한다. 이런 문제는 직접 풀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값을 대입하는 것이 문제 푸는 센스이다. 문제에서는 수입할당의 양(초과수요)이 500이라고 했으므로 두 식에 대입하여 초과수요의 크기(초과수요의 크기가 수입량이 됨)가 500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가격이 20달러가 되는 셈이다. 이때 수량할당을 통한 할당지대는 관세수입의 크기와 같은 음영 친 직사각형 면적이 된다. 수입량은 500이고, 국제가격보다 10달러 높게 받기 때문에 할당지대는 5,000달러($=10 \times 500$)이 된다.

